

연세대 2020학년도 기출 사회 1-1번

- ☞ 소문(rumor)의 발생 및 확산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가)

서울에 방송국은 물론 하나밖에 없다. 정동(貞洞) 쪽대기에 서 있는 경성방송국이 그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밖에도 여러 군데 또 다른 방송국이 있는 것을 안다. 시골을 가면 촌마다 방송국이 하나 이상 있다. 우물가에 모여드는 입빠른 여인들이나 버드나무 그늘에서 담배 피우는 노인들의 엇구수한 이야기 터 같은 것이 그 동리의 모든 놀랄만한 뉴스의 교환소요, 확대처요, 방송국이 되는 것이다. 서울이라고 시골처럼 일 없는 친구들이 없으란 법이 없으려다. 이리하여 무수한 방송국이 서울의 골목마다 생겨 있게 된다. 그 중에도 가장 새롭고 유별난 소식을 재빨리 내보내는 방송국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방송국이 된다. 불 안 땀 굴뚝에 연기가 나랴 하는 속담이 있지만, 실로 이런저런 소식을 지어내는 데 있어서 이 방송국들은 묘한 기술을 자랑한다. 게다가 그들이 뭔가 꾸며내는 재주를 부린 소식일수록 더 널리 퍼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그저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이해력이 극히 부족한 사람의 조급한 판단이다. 왜 그러냐. 결국 우리가 철학적으로 세상만사를 고찰한다 하면 참의 영토와 거짓의 영토가 어디에 확연한 국경선이 그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 하나를 제대로 알기도 어려운데, 또 어떻게 한 사실에 의존해 다른 사실을 단정 지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모두가 알고 다들 참이라고 믿는 소문이라도, 그것이 과연 참인지 어찌 알겠는가. 확실히 내 눈으로 본 것이라고 떠드는 사람의 말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참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가령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자리에 갑자기 강도가 들어와서 육혈포*를 겨누고 돈지갑과 시계를 다 기부받아 갔다고 생각하자. 그 손님이 지나간 뒤에 전화를 받고 온 종로서 형사가 여러분을 심문할 때에, 그 손님의 옷차림과 얼굴 생김새와 키의 길고 짧음에 대하여 여러분의 대답이 과연 일치될 것이냐. 만일 여러분 중의 한 사람이 대강 기억나는 대로 그가 검은 옷에 회색 바지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그렇지 않다, 바지는 푸른 바지라고 주장한다 치자. 여러분은 그 두 사람의 양심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 말이 모두 참말이라고는 믿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중에 세 번째 사람이 그의 바지는 누런 바지였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픽 웃는다 해도 해괴할 것이 없을 것이다.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소문이란 그런 연유로 생겨나는 법이다. 누구도 참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고, 이미 일어난 사건들은 제대로 확인할 도리도 없다.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조차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인상을 머릿속에 담는다. 그러니 누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확실히 안다고 자신할 수 있으랴. 이 허술한 지식에 기대어 선불리 과학을 논하거나 장차 일어날 일을 점치기는 더더구나 불가하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에 대한 소문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깜짝 놀란 사람들 사이에서 금세 퍼져나가는 것은 인간사의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 육혈포: 탄알을 넣는 구멍이 여섯 개 있는 권총

(나)

Societies, no matter how stable they may appear, are on-going things. The world is in a state of continuous transformation, and as life conditions change, knowledge must keep pace. Crisis situations arise whenever new events are not understandable in terms of established assumptions. Existing expectations are violated; new sensitivities arise; and new ideas emerge to be tested. In order that they may continue to act in association with one another, men must alter their basic attitudes and beliefs together. Thus, the emergence of new hypotheses and their acceptance as part of a modified view is a social process. As long as there is a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mong those caught in a crisis, social reconstruction will to some extent depend upon the reactions of those involved as they affect one another as well as upon their reactions to the events. It is by consulting each other and comparing their experiences that they alter their ways of acting. Rumor is an important part of this process of transformation. As such, it is not an abnormal phenomenon, but an integral part of the processes whereby men develop more adequate ways of coping with new circumstances. Since it is very unlikely that every new event will be defined satisfactorily through authoritative news media, it seems that rumors will always play some part in the efforts of men to come to terms with their ever-changing world. Rumor is a social interaction whose component parts consist of interpretative and communicative activity; it develops as men caught together in an ambiguous situation attempt to construct a meaningful interpretation of it by using all available intellectual resources. If demand for news in a public exceeds the supply made available through institutional news media, rumor construction is likely to occur. When information essential for adjustment is not readily available, the situation becomes problematic. Demand for new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nsity of collective excitement, and both depend upon the felt importance of an event to its public. The greater the importance of an event and the unsatisfied demand for news, the more likely it is that rumors will develop. When the situation in which it arose is no longer problematic, when either demand for news drops or supply becomes adequate, rumor construction is terminated. In situations characterized by familiar events and social stability, it is unlikely that rumors will be generated.

(다)

어떤 사람은 식사 후 30분 정도 낮잠을 자고 나서 눈을 뜨자마자,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위해 보초라도 선 것처럼 “무슨 소식 없소?”라고 묻는다. 밤잠을 자고 난 후의 뉴스는 아침 식사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 된다. “제발 이 세상 어디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건 간에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들려주세요!”라는 심정으로 그는 커피를 마시고 롤빵을 씹으면서 어떤 기사를 끝까지 읽는다. 그것은 한 남자가 서쪽 강변에서 전날 아침 두 눈을 뽑혔다는 무시무시한 소식이다. 그 기사를 읽는 동안, 그는 자신이야말로 어둡고 깊은 동굴에서 퇴화되어 흔적뿐인 눈 하나만 갖고 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것이다. 나는 신문에서 기억할 만한 소식을 읽은 적이 전혀 없다. 대개 누군가 강도를 만났다가거나 살해당했다거나 사고로 죽었다는 끔찍한 소식, 어떤 집에 불이 났고, 어떤 젖소가 철로에서 기차에 치였으며, 어떤 미친개가 죽었고, 겨울철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는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소식들인데, 이런 소식들은 종종 입소문처럼 재미를 위해 적당히 부풀려지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도 알 수 없다. 서로 관련도 없는 이런 소식들은 여러 번 읽을 가치가 없다. 철학자에게 이러한 ‘새 소식’은 모두 한담*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런 한담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기사들은 사람들의 값싼 기대와 호기심을 만족시키며, 빠르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되어 널리 퍼져나간다. 일 전에 어떤 신문사에 새로 들어온 외국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바람에 그 건물의 커다란 관유리 몇 장이 박살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 외국 소식이라는 것도 영악한 사람이라면 12개월 전, 아니 12년 전이라도 꽤 그럴듯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새로운 소식이라! 그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낡지 않는 것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겠는가! 속보와 뜬소문이 굳건한 사실인 양 인정받고, 진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진실만을 똑바로 주시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달리 더 가치 있게 변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새로운 한담거리나 흥밋거리로 소비하지 않고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얻고자 애쓴다면, 우리의 정신은 온전히 진실만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 허둥대지 않고 현명하게 처신한다면, 타인의 불행과 공포를 접하며 느끼는 사소한 두려움이나 하찮은 즐거움은 결국 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 한담: 심심풀이로 이야기를 나눔, 또는 그러한 이야기

연세대 2020학년도 기출 사회 1-2번

☞ 다음 지문의 논지에 비추어, 제시문 (가)와 (다)의 입장을 논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지문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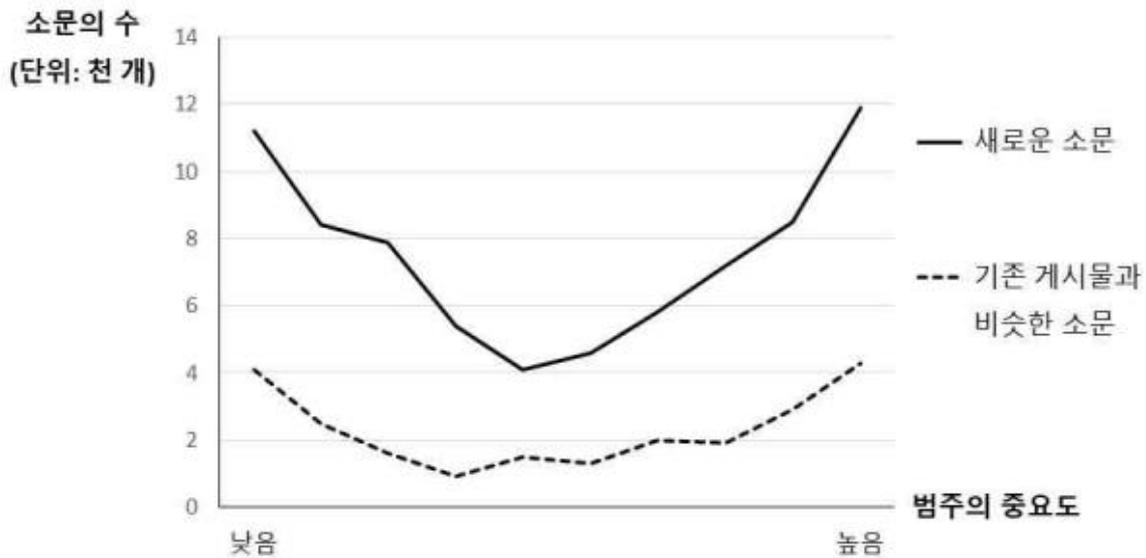
사실에 대한 지식은 본래 감각이며, 그 후는 기억일 뿐이다. 감각은 우리의 눈이나 귀나 기타 감각 기관에 바깥 사물이 압박하는 운동에 의해 생긴 환상일 따름이며, 기억은 그런 감각이 희미해지고 오래되어 과거의 것이 된 결과이다. 지식은 이렇게 감각과 기억에 의존하므로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 과학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하나의 사실과의 연관 또는 의존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이러한 지식은 조건적으로만 가능하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것이 있다, 있었다,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렇다면 저것은 저렇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 저것은 저렇게 된다’ 하는 조건적인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과학적 지식까지 결여된다면 타인의 담론과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진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보다 더 현명하고 양심적인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세대 2020학년도 기출 사회 2-1번

☞ 제시문 (라)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다)의 입장을 논하시오. (600자 안팎, 25점)

(라)

Y 대학 연구진은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퍼진 모든 소문을 모았다. 이러한 소문 중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게시글을 제외하고, 100명 이상의 회원이 공유한 소문만 추출하였다. 연구진은 소문의 속성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했는데, 게시된 소문의 내용이 얼마나 새로운가를 우선 파악하였다. 즉, 소문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기존 게시글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공인된 방식으로 측정된 후, 이것을 ‘기존 게시물과 비슷한 소문’, ‘새로운 소문’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소문의 내용에 따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건사고’, ‘해외연예’ 등으로 범주를 세분화하고, 범주 간 상대적 중요도를 대표성 있는 일반 시민 10,000명에게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세대 2020학년도 기출 사회 2-2번

- ☞ 제시문 (라)의 연구진은 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에게 의해 공유되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된 소문 중, 여섯 곳의 사실 점검(fact check) 기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참 또는 거짓으로 확인한 소문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참인 소문을 공유한 사용자의 수를 확률변수로 정의하고, 그 확률밀도함수를 $f(x)$ 라고 하자. 거짓인 소문을 공유한 사용자의 수도 확률변수로 정의하고, 그 확률밀도함수를 $g(x)$ 라고 하자. 분석 결과, 이 두 함수는 다음과 같다.

$$f(x) = \begin{cases} \frac{x}{18} - \frac{1}{18} & (1 \leq x \leq 4) \\ -\frac{x}{54} + \frac{13}{54} & (4 \leq x \leq 13) \end{cases}$$

$$g(x) = \begin{cases} \frac{x}{40} - \frac{1}{40} & (1 \leq x \leq 9) \\ -\frac{x}{10} + \frac{11}{10} & (9 \leq x \leq 11) \\ 0 & (11 \leq x \leq 13) \end{cases}$$

여기서 x 의 단위는 100명이다. 주어진 확률밀도함수들에 근거하여 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이 어떻게 다르게 확산되는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를 제시문 (가)에 나타난 소문 확산에 대한 관점과 비교하시오. (25점)